

가족끼리 상의해 둘 일은?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상정하여 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피난방법, 연락방법 등을 상의해 둡시다.



① 역할 분담을 정한다

일상생활에 예방대책상의 역할과 지진발생시의 역할을 정해 둔다.

② 위험한 곳을 체크

집 안팎을 체크하고 위험한 곳을 찾는다.

③ 안전한 공간을 확보

가구의 배치를 바꾸어 집안에 안전한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④ 비상반출품을 체크

필요한 비상반출품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⑤ 방재용구 등의 확인

소화기의 사용법을 익혀 둔다.
응급처치의 방법을 터득해 둈다.

⑥ 연락방법이나 피난장소의 확인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의 연락 방법이나 피난장소를 확인한다.

재해용 전언 다이얼

▶ 「171」을 기억해 두자!

재해시는 일반전화가 연결되기 어려워집니다.
NTT의 재해용 전언 다이얼 서비스를 활용합시다.

재해용 전언 다이얼의 사용법

전언을 녹음한다 171+1 +(000) 000-0000
전언을 녹음한다(30초 이내)

전언을 듣는다 171+2 +(000) 000-0000
전언을 듣는다(30초 이내)

전화의 가이던스는 일본어뿐이므로 지원자의 협력을 받으십시오.
※휴대전화회사 각 회사는 재해시에 안부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는 「재해용 전언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진대책
준비편

자연의 위협, 풍수해. 기상변화에 경계를!

풍수해대책
지식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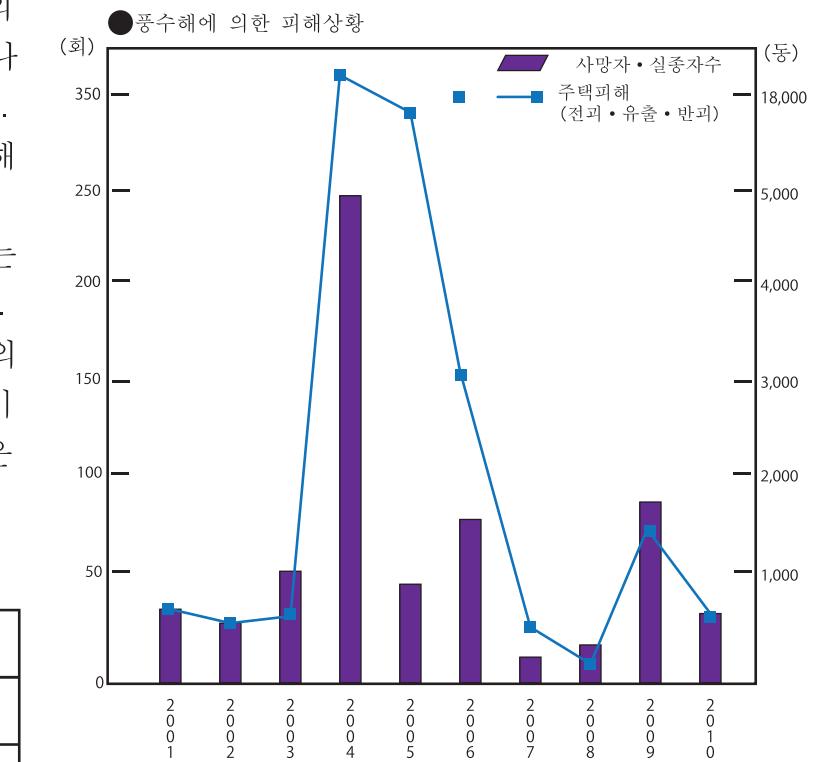


풍수해대책

일본 주변에서는 매년 평균 약 26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각지에 강풍이나 큰비에 의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나 토사 재해 등의 피해도 끊임이 없습니다.

풍수해는 산간부나 하천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중호우에 의해 도시부의 라이프라인이 파괴되어 지하실에 물이 흘러들어 사망자가 생기는 등 새로운 수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에 의한 피해상황



큰비에 의한 주된 재해

● 바람의 강함과 피해

평균풍속(m/초)	예보용어	상정되는 피해
10 이상-15 미만	다소 강한 바람	바람을 향해 걸기 어렵다. 설치가 불완전한 간판이나 합석판이 날아간다.
15 이상-20 미만	강한 바람	바람을 향해 걸지 못한다. 고속도로에서 황상속도에서의 운전이 곤란.
20 이상-25 미만	대단히 강한 바람(폭풍)	물건을 잡고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쓰러진다. 날아온 물건에 유리가 깨진다.
25 이상-30 미만		서 있을 수 없다. 차량 운전은 위험. 블록 벽이 부서진다.
30 이상-	맹렬한 바람	지붕이 날려간다. 목조주택의 전파가 시작된다.

● 비의 강함과 피해

1시간 강우량(mm)	예보용어	상정되는 피해
10 이상-20 미만	다소 세찬 비	주목주목 내린다. 빗소리에 얘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20 이상-30 미만	세찬 비	여수갑이 쏟아진다. 하수나 시냇물이 넘쳐고 작은 벼랑의 붕괴가 발생.
30 이상-50 미만	심한 비	양동이를 뒤집어엎은 것 같은 비. 벼랑의 붕괴가 일어나기 쉽다.
50 이상-80 미만	대단히 심한 비	폭포와 같이 내려 지하에 물이 흘러든다. 토석류가 일어나기 쉽다.
80 이상-	맹렬한 비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강하다. 엄중한 경계가 필요.

외수 범람

하천의 유량이 비정상으로 증가함으로써 일어난다.
제방의 무너짐이나 강물이 범람한다.

내수 범람

하천의 증수나 고조로 의해 배수가 막히거나, 배수를 소화하지 못하고 용수구야 하수구 등이 넘친다.

토사 재해

산사태・벼랑붕괴

산의 사면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린다. 순식간에 발생한다.

토석류

산골짜기나 사면에 쌓인 토사나 암석이 단숨에 밀려 흘러내린다. 파괴력이 크다.

지질변동

비교적 완만한 사면의 토양이 미끄러져 내린다. 한번에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위험은 급격하게 다가온다!

풍수해는 아직 팬찮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급격하게 상황이 변화될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온 다음에는 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이변을 느끼면 즉시 대응하도록 주의해 둡시다.

바람이 강할 때

노상에서는

강풍으로 간판이 날아가거나 가로수 등이 쓰러지거나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튼튼한 건물로 피난합니다.
단, 비를 동반하는 강풍일 때는 지하실이나 지하상가로는 도망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실내에서는

풍압이나 날아온 물건으로 유리가 깨지고 파편이 날아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안쪽에서 점착테이프 등을 붙이고 커튼을 닫아 둡시다.

바닷가에서는

바다에 전락하거나 높은 파도에 말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일의 우려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피난합니다.

큰비일 때

하천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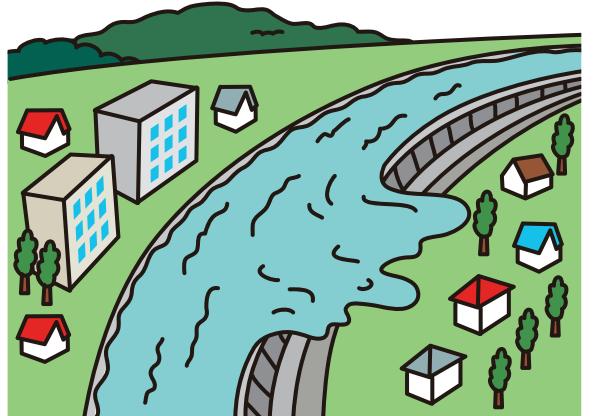
상류의 호우에 의한 갑작스러운 증수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강 등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제일입니다.

차를 운전중에는

호우가 내릴 때는 시야가 나빠지는 동시에 핸들조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도로 중심의 물이 적은 장소를 선택하면서 천천히 높은 곳으로 피난합니다.

노상에서 침수되어 있으면

높은 건물로 피난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는 간힐 위험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계단을 사용하여 위층으로 갑시다.



피해가 걱정될 때는

풍수해대책
준비편

기상정보에 주의한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발표되는 기상청에서의 경보
• 주의보에 주의합니다.
가까운 환경의 변화에도 주의한다.



함부로 외출하지 않는다

태풍이 접근하고 있을 때나 호우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함부로 외출하지 않도록.

창문 유리를 보강한다

밖에서 판자로 막거나, ×표시에 점착테이프를 붙이는 등으로 보강을.

가재도구를 이동시킨다

침수가 걱정될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중품, 생활용품, 식료 등을 높은 장소에 이동시켜 둔다.

안전한 장소에 피난한다

피해가 상정될 때에는 사전에 어린이나 고령자, 환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켜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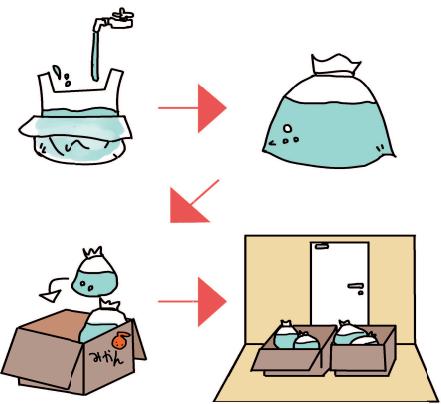
수낭 · 토낭 만드는 방법

주택에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깽깽

수심이 얕은 초기 단계라면 가정에 있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봉투를 이용

용량이 40ℓ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이중으로 하여 반 정도의 물을 넣어 빈틈없이 늘어놓는다. 골판지 상자에 넣어서 연결하면 강도가 높아 쌓아 올릴 수도 있다.



올바른 지식을 얻어 올바른 대응을 하자!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토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나고 심각한 방사능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는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모든 국민이 원자력재해와 무연관진 않습니다.

언제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곤란하지 않도록 올바른 지식을 익히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방사선이란?

방사선에 대한 기본을 알아봅시다. 잘 혼동되는 것이 「방사선」과 「방사능」, 「방사성물질」의 관계입니다.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방사성물질, 방사선을 내놓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부르며 각각 다릅니다. 방사선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존재하며 우주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지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지에는 라듐이나 화강암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있어 음식물 속에 포함된 미네랄류의 하나인 칼륨에도 방사성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것만으로 매일 방사선에 쪼이고 있습니다. 그 방사선은 세계평균으로 1년간에 2.4mSv (밀리시버트)입니다.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의 차이는?

체외의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사선을 쪼이는 것이 「외부피폭」, 체내에 들어간 방사성물질로 방사선을 쪼이는 것이 「내부피폭」입니다.

식품 속의 방사성물질의 기준치가 정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후, 후생성은 식품 속의 방사성물질에 대해 「잠정 규제치」를 설정했습니다. 잠정 규제치를 밀접하고 있는 식품은 건강에의 영향은 없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습니다만 더 한층 식품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4월에 새로운 기준치가 설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치는 식품으로부터의 피폭 선량의 상한을 잠정규제치의 연간 5mSv 에서 1mSv 로 내려 식품 속의 방사성 세슘 치는 (※) 식품군을 4개에 구분하고 방사성물질에의 감수성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에게 배려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치 이하의 식품이라면 오염된 식품을 계속해 먹어도 1년간에 피폭하는 선량은 1mSv 를 넘는 일은 없습니다.

원자력재해대책
지식편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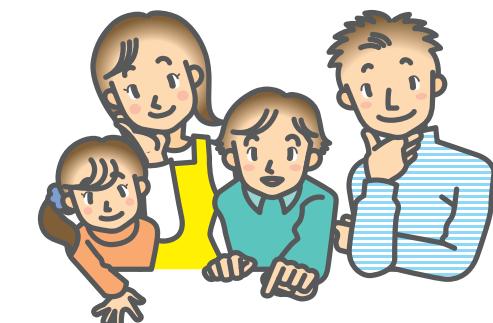
- 적당한 물질로 차단한다(실내대피, 콘크리트 실내대피)
- 할 수 있는 한 선원으로부터 거리를 둔다(피난)
- 피폭하는 시간을 줄인다(피난)

원자력재해대책
준비편

실내대피의 지시가 내리면

실내대피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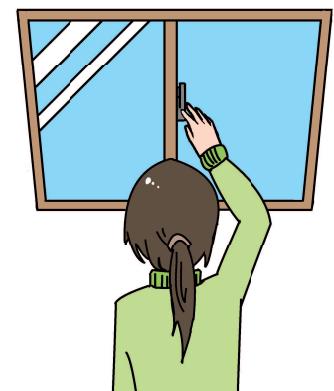
실내로 피난하면 지붕이나 벽으로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내대피는 자택 등 일반 가옥에 들어가는 것과 학교 등의 콘크리트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예측 피폭 선량이 작을 경우에는 일반의 목조가옥으로의 대피라도 방사선의 영향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실내대피로 취해야 할 행동

실내대피의 지시가 내리면 신속하게 자택 등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도어나 창문을 닫고 다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환풍기나 에어컨은 끈다
- 도어나 창문을 전부 닫는다
- 밖에서 돌아온 사람은 손이나 얼굴을 씻읍시다
- 공기 중에 떠도는 방사선물질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애완동물은 실내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로 문의 등은 삼가주십시오
- 호별수신기·옥외방송 탑이나 홍보차,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전해지는 정보에 주의해주십시오
- 실내의 식품에는 뚜껑을 덮거나 랩을 덮어주십시오
- 의복을 갈아입읍시다(갈아입은 의복은 비닐봉지에 보관하고, 다른 의복과 구별해 둡시다)



콘크리트 실내 대피나 피난의 지시가 내리면

원자력재해대책

실행편

피난의 효과

콘크리트건물은 목조가옥보다도 방사선을 차단하는 능력이 높아 더 높은 방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난 등을 할 때 취해야 할 행동

콘크리트 실내 대피나 피난의 지시가 내리면 먼저 지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홍보차나 호별수신기·옥외방송 탑 등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 귀중품을 가지고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줄여 모자나 윗도리, 긴 바지를 착용한다(몸 표면의 노출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가스 개폐기를 잠그고 전기기구 콘센트를 뺍니다
- 문단속을 잊지 않도록
- 집에 피난처나 안부정보를 쓴 메모를 남긴다
- 이웃에도 말을 걸어 도보로 대피소에 모인다



옥외에서의 간단한 내부피폭 방호

원자력발전소에서 60km의 거리에 있는 쿠사츠시에서는 바람에 날려온 방사성물질을 들이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입이나 코를 덮음으로써 방사성물질을 들이킴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의 확대방지에 평소의 대비를!

갑작스러운 재해에서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의 학습이나 비상반출품의 준비를 단단히 해둡시다.



방재준비

●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 데이터

인적 피해수	라이프 라인의 피해수(피크 때)
사망자: 6,434명	수도단수: 약 130만 호 ※후생성 조사
실종자: 3명	가스공급정지: 약 86만 호 ※자원에너지청 조사
부상자 중상: 10,683명	정전: 약 260만 호 ※자원에너지청 조사
경상: 33,109명	전화불통: 30만 회선 이상 ※우정성 조사

※수도단수, 가스공급정지, 정전, 전화불통에 대해서는 피크 때의 수치다.

기억해 두어야 할 응급처치의 포인트

출혈

1. 출혈하고 있는 부분에 거즈나 타월을 덮고 그 위에서 손바닥으로 압박한다(압박지혈).
2. 이때, 상처 자리는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한다. 또한, 감염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비닐 장갑이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상

1. 유수에서 충분히 차게 한다(환부에 직접 강한 수압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
2. 의복을 입은 채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억지로 벗기지 말고 그대로 차게 한다.
3. 물집을 터주지 않는다.

골절

1. 접힌 부분에 받침대(부목)를 대여서 고정하고 의료기관으로
2. 적당한 받침대가 없으면 판자, 잡지, 우산, 골판지 등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대용을.

염좌

1. 환부를 식힌다.
2. 구두를 신은 채 그 위에 삼각건이나 천으로 고정한다.

